

뉴스 초점 교육비리 대처 180도 달라진 광주·전남교육청

덮기 대신 들추기... 舊惡척결 초강수

비위 공무원 고발 잇따르며 교단 솔렁

광주·전남 교육계가 학기초부터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정수기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목숨을 끊은 큰 파문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공사관련 비위혐의로 수사를 받던 간부의 자살기도 소동이 빚어졌다. 최근에는 공사 수의계약 비리 의혹으로 전직 교육장과 교장 등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결과 비위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도 비위 학교장 2명 등을 과감하게 경찰에 고발, 수사를 적극 요청하고 있어 '갈바람'이 불고 있는 양상이다.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과거 일부 교육감들은 비위 관련자들

을 자체 징계로 무마하거나, 사직당국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비리 사건이 터지면 결국 학교현장의 교육불신으로 이어진다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보의 가치 아래 교육비리 척결을 '제1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교육감 등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장은 교육당국자들이 싸잡아 비리집단으로 비쳐더라도 결코 부정 부패를 감싸안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그런데 양 교육청의 이같은 변화에는 "구악을 청산하겠다"는 신호가 읽힌다. 현재까지 터진 교육비리가 모두 전입교육감 재임시의 비리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 교육청은 지

난 2월초 17억여원에 달하는 학교 시설설치 사업 등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모 전문계고 행정실장을 해임하고,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2009~2010년 사이에 이뤄진 비리다.

지난 5일에는 한 초등학교장을 뇌물수수·요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새 교육감 부임 전 비리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교육청 홈페이지 '장만채 신문고'에 제보된 비위 3건에 대한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달 23일에는 1800만원대 공급을 횡령한 여수 A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2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역시 새 교육감 부임 전에 이뤄진 비리다. 새 교육감진영의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한 일종의 선긋기 작업인 셈이다. 고통을 감수하는 선긋기다.

비록 정수기 납품비리 등 각종 비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확대돼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지만,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시·도민의 여론도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인사·수주·납품 등을 둘러싼 뿌리깊은 교육계 관행에 있어왔던 교육공무원들은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비위에 관련된 교직원들이 고민 끝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이른바 '저강도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마저도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양 시·도교육감은 비리척결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 교단에 한 동안 사정바람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비 맞을라...”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방사성 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비가 내린 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앞에서 한 시민이 겹옷으로 머리를 가린 채 황급히 비를 피하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시·도교육청 '방사능 비' 땀 재량 휴교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7일 일본 원전 폭발의 영향으로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420개 초중고에, 도교육청은 1490개 초중고, 특수학교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양 교육청이 폭설이나 폭염, 황사, 법정 전염병 등으로 학교장 재량 휴교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방사선 관련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시·도 교육청은 공문에서 ▲등·하교시 비·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학교 세면장에 비누 비치 및 손씻기 지도 ▲실의 교육활동 자제 ▲학교 단위 비상재해 대책반 구성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7일 휴업·휴교를 실시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역 학교가 휴업한 데 대해 휴업·휴교를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과부는 '방사능 관련 휴업 또는 휴교 안내' 공문에서 "각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를 할 경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신중히 이뤄지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에서는 126개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휴업했으며, 전북에서는 7일 5개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고 10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과학벨트 분산배치론 급부상

호남권 “핵심 빠진 분원 배치 안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등 호남권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분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핵심 시설이 제외된 분원(사이트 캠퍼) 등만 배치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7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

권 일각에서는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분산 배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은 지난 6일 과학벨트 입지 문제와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학비즈니스 도시가 아니고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힘을 실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과학벨트의 영남권 분산배치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작 광주시 등 호남권에는 기초과학연구원 분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핵심 시설은 제외되고 일부 분원만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벨트 공약 파기로 폭발 일보직전인 충청권 민심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요동치고 있는 영남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핵심 시설은 이 두 곳에 배치하고 광주시 등 호남권은 분산 배치라는 명분에 맞게 끼워 넣기 식으로 일부 분원만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을 충청권에, 분원을 영남, 호남 등에 배치하는 방안은 지난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했던 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가 이뤄진다면 기초과학연구원 분원은 당초 입지였던 충청권에 가는 것이 맞다"며 "여기에 다른 핵심 시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영남권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공조 아래, 과학벨트 분산 배치가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요구하고 있는데다 강준배 광주시장과 김영진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정치권이 미온적인 모습에 있어서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추모식

▶오늘 오전 11시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기념공원

정확한 소식, 정직한 소리, 정다운 신문 <신문의 날 표어>

신문의 날 휴무로 내일 휴간...인터넷 광주일보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창간 50주년
광주일보
1962-2011

호텔프라도 웨딩 품격 서비스

- 웨딩홀, 패백실, 꽃장식, 안개요괴연출, 비눗방울, 특수조명 연출, 축포, 예식비품일체 무료서비스(200명 이상)
- 생화장식, 야외 결혼식, 피로연, 별도문의
- 얼음조각장식 추가 서비스(300명이상 예약시)

고품격 웨딩으로의 초대

- 하루 단 한쌍, 당신만을 위한 예식(500명 이상)
- 품격과 여유가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웨딩도 호텔프라도에서 준비하면 다릅니다.

호텔프라도 웨딩홀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 충분한 예식시간과 여유로운 식사(단독 연회장 제공 : 200~800명 수용)
- 첫날밤, 신랑 신부님을 위한 허니문 스위트룸(W₩270,000) 무료 제공
- 공항, 고속도로, 시내 등으로 통하는 편리한 교통여건
- 최고의 음향시설, 하객 분들을 위한 고품격 안내서비스, 격조높은 최고급 웨딩홀
- 특급호텔 빛고를 최고의 조리팀과 최상급 요리와 서비스팀의 세련된 서비스 제공
- 편리한 주차공간(180대 주차공간 단독 사용)

호텔 프라도
PRADO

예약문의 | 상담 | 062-654-6600
www.pradohotel.co.ke